

집중적인 노력에 대한 사랑을 화산처럼 만들고 무한한 무관심의 물결을 퍼뜨려라.

오늘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의 이마에 세 개의 선을 보고 있었다. 첫째 선은 신에게서 받는 양식을 늘리는 너희들의 행운의 선이다. 너희는 신의 부양을 받는 이 행운을 전체 칼파를 통틀어 단 한 번 얻는다. 합류시대 외에 다른 어느 때에도 신에게서 이러한 부양을 받을 수 없다. 극히 소수의 자녀들만이 신으로부터 이 부양을 받는다. 둘째 선은 신과 함께 공부하는 행운의 선이다. 신의 공부를 하는 너희의 행운은 참으로 대단하다. 지고의 영혼 자신이 선생이 되어 너희들을 가르친다. 셋째 행운의 선은 너희들이 신으로부터 받는 성취의 명단이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를 좀 생각 해봐라. 너희들 모두 너희의 성취의 목록이 얼마나 긴가를 기억한다. 이 세 행운의 선이 모든 자녀들의 이마 위에 빛나고 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그런 복 있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느냐? 부양과 공부와 결실. 이와 더불어 밥다다는 또한 너희의 믿음을 토대로 한 영적인 도취감도 보고 있다. 신의 자녀들인 너희 영혼들은 모두가 그런 영적인 도취감을 갖고 있다. 너희들은 온 세상과 전체 칼파를 통틀어 모든 이들 중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거룩하다. 다른 어느 영혼도 너희들이 신인의 형태에 있을 때처럼 몸과 마음이 순수해지고, 미덕으로 가득 차며, 악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며 또한 가장 부자다. 설립 초창기에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장 부자임을 일깨워주곤 했다. 또한 신문에도 “움 만달리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라는 대단히 도취된 글이 실리기도 했다. 그것은 창립 초기의 너희들 모두에 대한 찬양이다. 누군가가 하루 만에 수-수-수백만 장자가 된다 해도 너희만큼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너희가 가장 부유하다. 너희가 모든 자들 중 가장 부자가 되는 표시가 무엇이나? 그것은 아주 작은 방법이다. 사람들은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하는 반면 너희는 아주 쉽게 계속 모든 보물로 가득 채워진다! 너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작은 점을 찍는 일 뿐이다. 점을 찍으면 너희들은 소득을 벌 수 있다. 영혼은 하나의 점이고, 아버지도 점이고, 드라마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역시 하나의 점이다. 너희가 하나의 점인 영혼을 기억하자마자 너희의 소득은 늘어난다. 일반 세계에서든 영을 더하면 수가 커진다. 숫자 일에 영을 하나 덧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십이 된다. 너희가 영을 하나, 둘, 셋, 넷 덧붙일수록 숫자는 계속 커진다. 너희의 방법은 참으로 쉽다! 영혼이라는 의식의 점을 찍는 것은 보물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너희가 아버지의 점을 찍으면(아버지를 기억하면) 더 많은 보물을 쌓는다. 그런 다음 너희가 남들과의 연결과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동안 드라마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으면, 과거에 대해 완전한 마침표를 찍으면 너희의 보물은 더욱 늘어난다. 그러니 너희는 하루 중에 몇 번이나 점을 찍느냐? 너희는 점을 찍는다. 그렇지 않느냐? 점을 찍는 것은 너무나 쉽다. 너희는 그것이 어려우냐? 아니면 그 점이 자꾸 사라져 버리느냐?

밥다다는 너희에게 소득을 버는 방법은 단순히 점을 덧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너희들 모두 점 찍는 법을 아느냐?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한 손으로 손뼉을 쳐라! 그것이 확고하겠지?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때로는 찍힌 채로 있느냐?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점을 찍는 일이다. 눈 먼 사람도 연필을 가지고 종이 위에 쓸 수가 있다; 그도 점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트리네트리(세 눈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세 점을 사용하라. 의문 부호(question mark)는 곁여져 있다. 그걸 써놓고 보아라. 구부러져 있다, 그렇지 않느냐? 점을 찍는 것은 너무나 쉽다. 그래서 밥다다는 너희에게 대등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방법은 그저 점을 찍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몸 없이 되기 위해서도, 너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한 점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몸 없이 될 때 또는 카르마티트가 될 때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점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밥다다는 또한 앞에서 너희에게 암리트 벨라에 밥다다와의 만남을 축하할 때, 너희가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할 때, 또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먼저 너희의 이마에 세 점의 틸락을 붙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너희 이마에 실제로 빨간 세 점의 틸락을 찍지 말고 이 의식의 틸락을 찍고, 그런 다음에는 어떤 이유로도 그 틸락이 지워지지 않게 해라. 틸락이 결코 지워질 수 없을 만큼 불멸한가?

밥다다는 또한 너희 자녀들의 사랑을 보고, 너희 모두가 이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로 달려오는가를 본다. 그리고 너희가 바바를 만나기 위해 이 홀에 와서 앉을 때는 너희의 사랑 때문에 앞에 가까이 첫 번호에 앉으려고 어찌나 노력을 하는지 잠이나 갈증 등은 잊어버린다. 밥

다다는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본다. 바바는 전체 드라마를 본다. 너희 자녀들이 가진 사랑 때문에 밥다다 역시 너희 자녀들에게 자신을 바치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 육신의 형태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달려온 것과 같은 정도로 아버지와 대등하게 되려는 집중적인 노력을 하라. 너희들 모두가 어느 누구보다도 앞 번호를 얻으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육신의 세계이고 따라서 육신 세계의 법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 때에 밥다다는 너희가 모두 앞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되기는 한다. 그러나 어떻게? 밥다다는 뒤에 앉은 자들을 끊임없이 그의 눈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본다. 눈이 모든 것 중 가장 가깝다. 따라서 너희는 뒤에 앉은 것이 아니라 밥다다의 눈 안에 있다. 너희는 눈의 빛이다. 뒤에 앉은 자들은 모두 이 말을 들었느냐? 너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신체적으로는 너희가 뒤에 있을지 몰라도 너희 영혼들은 가장 가까이 있다. 밥다다는 뒤에 앉은 자들을 가장 많이 본다. 앞에 가까이 앉은 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바바를 볼 기회가 있는 반면에 뒤에 앉은 자들은 그렇게 가까이 볼 기회가 없다. 따라서 밥다다는 너희를 자신의 눈 안에 담는다.

오후 2시만 되면 모두 줄을 서기 시작하기 때문에 밥다다는 계속 미소를 짓는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이 거기에 서 있느라 아마도 피곤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사지를 해준다. 그러면 너희의 다리가 마사지를 받는다. 너희는 밥다다의 마사지를 느꼈느냐? 그것은 아주 사랑스럽고 독특하다. 그래서 오늘 이 씨즌의 마지막 기회를 차지하려고 모두가 곳곳에서 달려왔다. 좋은 일이다. 아버지와의 만남을 축하하려는 너희의 열성과 열의가 너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그러나 밥다다는 자녀들을 단 일 초도 잊지 않는다.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지만 자녀들은 많다. 그러나 바바는 너희 많은 자녀들 중 누구라도 단 일 초도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오래 잃었다가 이제 찾은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바바가 어떻게 이 땅과 외국의 먼 구석구석에서 너희들 모두를 찾았는가를 보아라. 너희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느냐? 너희는 계속 방황하고 헤맸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었든, 아버지가 자녀인 너희들을 각기 다른 나라, 읍, 도시 등에서 찾았다. 그가 너희를 그에게 속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노래한다: 나는 바바에게 속하고 바바는 나에게 속한다네. 바바는 너희의 카스트나 나라, 피부색 등을 보지 않았다. 그는 너희 각자의 이마에 있는 영적인 색깔 즉, 조티 빈두(Jyoti bindu)만을 보았다. 너희 이중의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너희의 카스트를 보았느냐? 너희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아름다운지 못생겼는지를 보았느냐? 바바는 아무 것도 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너희들이 그에게 속한다는 것만을 보았다. 그러니 이것이 바바의 사랑이냐 너희의 사랑이냐? 누구의 사랑이냐? (둘 다입니다)

자녀들의 대답이 아주 영리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바바, 당신은 우리에게 사랑이 사랑을 끌어당긴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자녀들은 아주 영리하고,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이 대단한 용기와 열성과 열의를 갖고 있어서 기쁘다.

밥다다는 여러 자녀들로부터 15일간의 차트 결과를 받았다. 곳곳의 자녀들이 내놓은 결과에서 밥다다가 본 한 가지는 너희들의 대부분이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이다. 퍼센티지는 너희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너희는 관심을 기울였고,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너희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부주의와 게으름 때문에 지금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들의 특별한 슬로건은 이렇다: 네, 우린 할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거예요. 너희가 거기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주의함이다. “난 반드시 거기에 도달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집중적인 노력이다. 밥다다는 많은 약속들을 듣는다. 너희는 거듭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약속들을 한다. 자녀들아, 그럴 때 너희들은 어찌나 용기 있게 약속을 하는지 심지어 밥다다에게도 딜쿠쉬 톨리(Dilkhush toli)를 준다. 바바는 그것도 역시 삼킨다! (너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약속(바이다)을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가장 큰 유익(파이다)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너희가 유익을 경험하지 않으면 너희의 약속은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을 해도 좋다. 왜냐하면 적어도 너희는 바바에게 딜쿠쉬 톨리를 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너희는 또한 집중적인 노력에 대한 사랑이 불의 형태를 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화산처럼 되어라. 때에 의해서, 너희의 마음과 인간관계와 연결에 어떤 카르마 계정이 아직 남아있던

라도 그 모든 것을 너희의 화산의 형태를 통해 태워버려라. 너희들은 사랑을 갖고 있고, 밥다다는 이에 대해 너희에게 합격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사랑이 불의 형태를 취하게 만들어야 한다.

세계의 한편에는 부패와 폭력의 불이 타고 있을 것이고, 다른 편에는 강력한 요가, 즉, 화산 형태의 사랑의 불이 필요하다. 너희의 불이 화산과 같이 강력하면 부패와 폭력의 불을 끝내버리고 모든 영혼들에게 협조를 제공할 것이다. 너희의 사랑이 화산 형태가 되게 해라. 즉, 강력한 요가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기억의 불이 저 불을 끝낼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것은 영혼들이 신의 메시지와 더불어 차별함의 형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것은 무한한 무관심의 태도를 강력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모든 것을 태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식혀줄 것이다. 그것은 무한한 무관심의 물결을 퍼뜨릴 것이다. 자녀들은 말한다: 나는 요가를 하고 있고 나에게서 바바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참 좋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이 이제는 화산 같아져야 한다는 말을 너희들은 들었다. 기념물에서 삭티 즉 마하삭티는 모두가 모든 무기를 들고 있는 형태로 묘사되어왔다. 너희는 이제 그 마하삭티의 형태를 드러내야 한다. 너희들은 모두 삭티든 판다브든 간에 대양에서 나온 지식의 강들이다. 너희들은 대양이 아니고 강들이다. 너희들은 지식의 간지스 강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지식의 간지스 강들은 이제 지식의 차별함을 가지고 영혼들을 그들의 죄의 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금 너희 브라민들이 할 일이다.

너희 자녀들 모두가 내년에는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왔다. 그러므로 밥다다가 너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봉사는 이와 같다: 때에 의해서 너희 모든 자녀들은 은퇴의 단계에 있다. 은퇴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자기 시간과 시설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 은퇴한다. 따라서 너희들은 모두 너희의 시간과 고양된 생각의 보물을 남들을 위해 써야한다.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과 생각을 적게 써라. 도구가 되고 시간과 생각을 남들을 위해 씌으로써 너희는 그 봉사의 실질적인 열매를 먹는 도구가 될 것이다. 너희의 생각을 통해 봉사하고 너희의 말을 통해 봉사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너희와 연결이 되거나 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그것이 브라민 영혼이든 아니든 간에, 마스터 공여자가 되어 그들에게 뭔가를 주어라. 이타적이 되어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희열과 사랑의 경험을 주어라. 너희는 주어야 하고, 주는 것은 자동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와 접촉하게 되는 사람 누구라도 너희한테서 뭔가를 얻어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이기심 없이 되어라. 그들이 너희 공여자 마스터들에게 온 다음에는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브라마 바바가 걷거나 돌아다닐 때 어떤 자녀가 그 앞에 오게 되면, 그는 뭔가를 경험하지 않고 바바를 떠나는 일이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에는 너희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갔는지를 점검해 보아라. 보물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뭔가를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와 같이 무한하고 끊임없는 공여자가 됨으로써 누구도 너희에게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게 하여라. 공여자는 결코 요구를 받았을 때만 뭔가를 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무한하고 위대한 기부자, 위대한 공여자는 요구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준다. 금년에 너희가 해야 할 첫째 봉사는 위대한 공여자가 되는 일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공여자에게서 받은 것을 주는 것이다. 브라민들은 거지가 아니라 협조하는 영혼이다. 브라민들은 서로에게 기부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협조한다. 이것이 첫째 가는 봉사다. 이와 함께 밥다다는 외국의 자녀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다. 바바는 너희에게 세상에 소리를 퍼뜨리기 위해 마이크를 찾으라고 말했었는데 이를 성취하기 위해 외국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잘 협력하였다.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데 바라트에도 밥다다가 13개 지구에 각자 적어도 특별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하나씩 만들어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들을 마이크라 부르든 무어라 부르든 간에 누군가를 소리를 퍼뜨리는 도구를 만들어라. 밥다다는 너희가 최소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큰 주에서 그런 도구들을 찾게 되면 지구와는 별도로 큰 주에서 그런 영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밥다다는 마음으로부터 외국의 자녀들을 축하했고, 밥다다 앞에 너희가 앞으로 실천할 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말로 너희를 축하하고 있다. 사실 밥다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라트에서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양질의 봉사를 해서 영혼들과 협조적인 영혼들을 더 가까이 데려와야 한다. 많은 협조적인 영혼들이 있지만 이제 너희들은 그들을 집회 안으로 한층 더 가까이 데려와야 한다.

이와 함께 이제 시간이 임박해오므로 대도시의 각 지역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각 센터가 각 지역 안에 누군가 특별한 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밥다다는 생각한다. 끝에 가면 너희들 모두가 너희 스스로를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연사가 되어서 너희를 대신해 말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저 썬치라이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각자 너희 지역에서 그런 ‘마이크’를 준비해야 한다. 각 지역마다 그런 탁월한 사업가나 여러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 너희 각 센터의 지역 안에 특별한 영혼들을 준비해라. 그들이 이 지식이 무엇인가에 관해 말해야 한다. 지금부터 너희는 그들이 연사가 되게 하고 너희는 마지막 순간에 너희의 드리시티로 비전을 주는 천사의 이미지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 모두 연사가 되는 방법을 배웠다. 젊은 선생들도 연설을 아주 잘 한다. 너희들 모두가 연설을 한다. 이제 너희들은 다른 연사들을 준비해야 한다. 몇 마디 말과 너희의 드리시티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훌륭한 연설을 했다고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때가 와야 한다. 앗차

신의 부양에 권리를 가진 모든 영혼들에게, 신의 공부를 할 권리를 가진 고귀한 영혼들에게, 신으로부터 받은 성취로 가득 찬 영혼들에게, 점의 방법을 사용하는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애씀으로부터 자유롭고 항상 사랑에 잠겨있는 자녀들에게, 화산 형태를 가진 특별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축 복: 산 죽음을 죽은 생을 의식하며 모든 이들을 드높여주고 카르마의 굴레를 봉사의 관계로 변화시켜라.

세속의 카르마 굴레의 관계는 산 죽음을 죽은 지금 이 생에서는 슈리마트에 따른 봉사의 관계의 바탕이다. 그것은 카르마의 굴레가 아니라 봉사의 관계다. 봉사에 있어서, 만일 너희가 다양한 유형의 영혼들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서 계속 움직여 나간다면 어떤 굴레로 인한 괴로움도 겪지 않을 것이다. 극도로 죄가 많은 영혼들과 남들을 모욕하는 영혼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자비로워지고 자비와 온정의 느낌을 가져라. 만일 너희가 봉사의 관계로 그들에게 봉사한다면 너희들은 세계에 유익을 주고 모든 이를 드높여준 매우 잘 알려진 영혼으로서 기억될 것이다.

슬로건: 때와 상황에 의해서 무관심을 갖는 것은 일시적인 무관심이다: 이제 영구적인 무관심을 가진 자들이 되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